

CONTENTS

- 2면 조의금으로 지역에 온정
- 3면 오색삭도 선정 가능성 높아
- 4면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사업 선정 관심
- 5면 내년 당초예산 국비 705억 확보
- 6면 사랑의 땀감나누기 온정
- 7면 양양송이밸리 숙박시설 확충
- 8면 양양예총 종합예술제 개막
- 9면 새 슬로건 개발사업 용역 추진
- 10면 사랑의 연탄나눔 겨울나기 도움
- 11면 게시판
- 12면 알아두면 좋아요

· 발행일 : 2014. 11. 24(월) · 발행인 : 양양군수 · 편집인 :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033)670-2223 / Fax(033)670-2276



태고의 신비 고이 간직한
양양이 겨울옷을 갈아입다

떨어져 튕구는 단풍 사이로
굽이굽이 흐르는 갈천계곡은
순결한 자태를 뽐낸다.

태고적 신비 고스란히 간직한
양양의 자연은 말로다 형언하지
않아도 아름다움 그 자체다.

오색기울의 풍성함을 뒤로하고
수줍게 초겨울의 옷을 갈아입는
양양은 자연이 빚어낸 선물이다.

故 고석만 씨 미망인 이순남 여사 장례 후 조의금으로 지역사회 곳곳에 온정

장학회·성당·마을회에 쾌척

고교연 산림보호담당의 모친이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후 남은 조의금으로 지역사회 곳곳에 온정을 전해 미담이 되고 있다.

고 담당의 모친인 이순남(79) 씨는 지난달 26일 별세한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뒤 조의금 가운데 200만원을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쾌척한데 이어 송전리 마을회에 150만원 상당의 50인치 TV를 전달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이

씨는 천주교 양양성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의 기념사업에 써달라며 500만원을 흔쾌히 내놓았다.

유가족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위해 보탬이 돼야 한다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에 지역사회 곳곳에 온정의 손길을 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교연 담당은 올해까지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던 선친을 아내와 함께 극진히 봉양해 지난해 제

41회 어버이날을 맞아 효자효부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1981년 농업직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농정과 유통업무를 맡아 양양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그는 그동안 농림부장관과 강원도지사 표창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내년도 당초예산 긴축재정 편성

우리군, 재정건전화 목표...군비 부담 줄이기로

우리군이 정부의 재정위기관리제 도입에 따라 내년도 재정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군은 최근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 부서별 자료를 취합한 결과 소모성경비와 민간관련 경비를 동결해 긴축예산을 편성, 재정 건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민선6기 출범 후 부채 탕감을 목표로 집행부가 정부시책에 발맞춰 재정건

전화를 이뤄내 경쟁력을 높이고 긴축재정을 원하는 주민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사회복지와 일자리, 환경관련 사업 증가로 군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잉여금 대폭 감소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경상경비 중 소모성 경

비는 동결하기로 하고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민간행사 보조금 등 7개 과목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탑다운 설정한 도액은 총 61억원 규모로 부서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제출하게 된다.

한편 민간행사 보조금은 2013년 전체예산 대비 0.59%에서 올해는

0.22%로 절감한 바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2013년과 올해 공히 0.18%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매년 사회복지 및 경상적 경비 등의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5년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당초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필수 반영사업은 총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해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670-2108

우리군 신규직원 15명 임용장 수여

우리군은 지난 1일자로 신규 임용된 마현진 씨 등 15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갖고 지역발전에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환기 부군수가 임용장을 전달한 뒤 공무원 윤리강령에 대한 서약을 받고 있다.



내년 3.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양양군선거관리위, 지난 13일 공명선거 협약식 가져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2시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 3층 회의실에서 내년 3.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대상 위탁 선거법 안내 및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갖고 공명선거 동참을 당부했다.

오색삭도 설치사업 내년 선정 가능성 높아

박근혜 대통령 조기추진 당부 탄력...내년 4월 공원계획변경 신청 목표

“2018평창동계올림픽 전 시범운영 돼야” 주문

우리군의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내년도 정부의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분야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오색삭도의 적극 지원을 공식화한데 이어, 지난달 30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준비 상황보고회’에 참석해 “올림픽 볼거리 관련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고 독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현재 환경부에서 다 준비가 돼 있고, 강원도민들도 염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기에 시작됐으면 한다”고 강조하며 시범사업 선정 시기를 앞당기도록 주문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9일부터 시작되기 때

문에 1월에는 시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게 조기 선정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내년도 선정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강원도, 우리군은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대표적인 관광·콘텐츠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우리군도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중앙부처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자, 내년 4월 오색삭도 시범사업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목표로 세부계획 이행에 들어갔다.

오색삭도추진단은 이달까지 동남아와 유럽 등 해외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마치면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비롯해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4월 환경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내면 산림청의 산지전용허가와 함께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삭도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오색삭도추진단은 이에 따라 우리군이 추진하는 오색삭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친환경 산악관광인프라로 타당성이 높다는 용역도 실시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내는 작업도 병행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원도도 지난 6일 오후 2시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김진하 군수와 케이블카추진위원회, 재정양

양군민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색삭도 설치 환경단체와의 토론회’를 열고 타당성을 설명했다.

한편 우리군이 14년째 추진하고 있는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국·도·군비 450억원을 투입해 제1안으로 최적합 평가를 받은 오색집단지구~남설악 끝청 구간에 3.4km 길이로 8~10인승 규모의 곤도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된다. 공사기간은 24개월로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내년도 조기 추진이 유력시되고 있다는 분석이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의 오색삭도추진단 670-2530

행정사무감사 12월 19일 까지 실시

장흥 토요시장·통영 케이블카 등 견학

우리군의회는 11월 3일 제20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1월 10일까지 8일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오한석 의원, 간사에 김정중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4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는 11월 25일 김진하 군수의 2015년도 시정연설과 민선 6기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도 함께 심사하게 된다.

의회는 앞서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의원 전원은 완주군 거점농민가공센터와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을 방문해 지역 주



민 공동체를 통한 제품 생산과 지역농협 등을 통한 지역 농산물 판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통영과 밀양 케이블카 운영현황을 견학하

고 오색삭도 사업선정 후에도 공익과 사익의 양보와 조화를 통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펼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사업' 선정 관심

도 평가서 1위...향후 4년간 150억 투자

손양면 수산항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어항개발사업' 강원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평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산항은 지난달 도내 각 항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아름다운 어항개발사업 평가에서 동해안 요트마리나시설과 봉수대 전망대 등 관광시설에다, 향후 위판시설도 구축될 예정이어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선진어항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국가 및 지방어항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아름

다운 어항개발사업 대상지로 공모,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수산항이 아름다운 어항개발 대상지로 선정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방파제 및 어항시설 벽화 및 디자인 도입, 수변산책로 및 전망·휴게시설 조성, 어항의 이야기 담은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등 다양한 해양레저사업이 추진된다.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관광어항의 전초기지로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기대효과 커지고 있다.

▶문의 해양수산담당 670-2740

지역출신 함승희 씨 강원랜드 사장 선출

특수검사·16대 국회의원 역임...“강원도 발전에 헌신”

우리군 출신의 함승희(63, 사진) 전 국회의원이 강원랜드 신임 사장에 선출됐다.

강원랜드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강원랜드호텔 대연회장에서 제18차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사장·부사장을 포함한 신임 이사진을 선출했다.

손양면 와리가 고향인 함승희 신임 사장은 양양중과 서울 양정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2회)에 합격, 서울지검 특수부검사, 대검 수사연구관,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을 거쳐 1994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검사 재직시절 특수통으로 불린 함 사장은 19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을 진두지휘하며 기업의 비자금을 세간에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후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노원갑에 출마, 당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다, 2007년 친박캠프에 합류해 친박연대 공천심사위원장,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강원도민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함 사장은 지난 2008년 (사)오래포럼을 창립해 학술연구활동, 특강 및 인재양성, 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향에서는 선친의 유지를 받든 청파장학회를 설립해 올해까지 23회째 장학금 지급을 통해 지역인재육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선됐으며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을 지낸 뒤 2004년 법무법인 대륙의

“20여년간 남대천 환경보전에 헌신”

이태희 남대천보전회장, 생태어도 3곳 바로 잡아

이태희 양양남대천보전회장이 지역환경보전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잘못 설계된 남대천 어도를 바로잡도록 해 성과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남대천의 주요 어도인 임천보와 범부보, 공수전보 등 3개보가 40년 전에 설치돼 연어와 은어 등 향토어종이 오르지 못하면서 생태계 파괴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는 학술적 평가를 토대로 그동안 양양군과 강원도에 이 같은 실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현재 개선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연내 3개보에 대한 개선공사가 완료되면 양양군의 대표적인 어종인 연어를 비롯해 다양한 향토어종의 원활한 소상이 가능해져 왜곡된 생태계가 바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1988년 교사들이 중



심이 된 양양남대천보전회의 창립 멤버로 참여한

뒤, 이듬해인 1989년 회장을 맡은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열정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학생회원 500명 확보 등 전 군민들이 남대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또 양수발전소의 남대천 오염 방지를 위한 감시·감독 역할을 하고, 양수댐수질보전협의 회장도 맡아 항구적인 오염예방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와 매미 피해를 입은 서면 용천1교 제방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통수단면이 잘못됐다고 지적, 제방을 넓히는 설계변경을 이끌어냈다.

“여성교육에 고용 연계 취업률 높이기”

양양여성새일센터-여성단체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맞춤형 전문인력 배치 시도

우리군이 여성들의 신규취업률 높이기 위해 교육과 고용을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김재미)는 지난 20일 우리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금희)와 여성교육과 고용을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여성새일센터의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수



료한 동화구연 지도사 과정 훈련생 13명은 양양군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단체협의회가 공모한 ‘어린이집 보조보육돌보미 사업’에 투입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훈련생들은 그동안 여성새일센터의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관내 11개 어린이집 현장에서 12월까지 주 2회(1회 3시간) 구연동화 특강교사로 2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여성발전기금 어린이집 보조보육 돌보미 사업은 재능기부자를 어린이집에 배치해 운영해 왔으나, 올해는 교육의 연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협약을 맺고 교육훈련생을 구연동화 특강교사로 활용하게 됐다.

양양여성새일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 훈련은 특별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재능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인재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교육훈련’과 ‘고용기회’ 제공이라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군 내년 당초예산 국비 705억 확보

올보다 124억원 증액...주요 현안사업 탄력 기대

우리군이 오색사도 설치사업을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국비확보 전략이 실효를 거둬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군은 전체예산의 2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국비가 지역발전의 커다란 원동력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국비확보 총력전을 펼쳐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70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의 국비 581억원보다 21%(124억원)

가 증액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군도3호선 확포장사업(31억6천만원)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조성사업(20억원) △현북·현남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사업(12억9천만원) △현북·현남·강현·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37억원) △탁장사·구령룡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10억3천만원) △양양종합운동장 조성사업(19억4천만원) △양양·하조대·남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및 하수관

거정비사업(73억원) △여성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12억4천만원) △강현면 중복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15억원) △후천 재해예방사업(25억원)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10억2천만원)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17억6천만원) 등 주요사업을 포함해 총 226건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성과는 김진하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그동안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피력,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출향인사 등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군은 부처별 총액사업에 미 반영된 사업과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김진하 군수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막바지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670-2108

우리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4년간 15억여원 투입 건강정책 뒷받침

우리군이 열악한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군은 지난 3일 4개월간의 장고 끝

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뒤 14억9,800만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 보건정책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6기 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향

후 4개년 동안 우리군이 추진코자 하는 중장기 사업방향과 주민건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으로, ‘건강 100세 명품도시 양양’으로 정하고, ‘전염성질환의 유병률 감소’, ‘건강잠재력 강화’, ‘건강 형평성 제고’ 등 3개 분야 8개 중장기 추진과제와 17개의 세부추진 과제를 담았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현재 흡연율을 21.5%에서 18%로 낮추고, 걷기 실천율은 31.3%에서 35%로 올리며, 국가 암 검진 수검율을 40%에서 42%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수검율을 35%에서 40%로 각각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의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670-2550

겨울철 사랑의 땀감나누기로 온정

우리군, 21일까지 80세대에 전달 계획

우리군은 겨울철을 맞아 숲 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한 사랑의 땀감나누기 행사를 추진한다. 군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80세대에 청소차량 4대분에 달하는 땀감을 각 읍면에 전달 계획이다.



이번에 전달하는 땀감은 숲 가꾸기 현장에서 형질 불량목, 가지치기

기목, 고사목 제거 등을 통해 발생한 나무를 지난 6월부터 겨울철 난

방용 땀감으로 준비한 것으로 수집한 원목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작으로 만들어 지원세대에 직접 전달한다. 특히 사랑의 땀감나누기는 숲 가꾸기 현장의 부산물을 수거함으로써 산불발생시 확산방지, 산림경관 저해요소제거 및 산림병해충 예방, 친환경 에너지원 재활용, 공공산림 가꾸기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충국 산림복지과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고유가로 겨울철 난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활참여자 직업능력향상 직무교육

양양지역자활센터 실시...이건필 센터장 자활의미 강의



양양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진필)가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참여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문화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양양군사회복지협의회 후원으로 자활참여자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진필 센터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고자 시작된 자활사업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변화하는 자활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자활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직

업훈련이나 취업을 통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직무교육은 인근 강릉지역자활센터와 양양새일센터 관계자도 참석해 활력 넘치는 강의와 함께 신나는 레크리에이션 무대로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이진필 센터장은 “공동체적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시책에 발맞춰 앞으로 자활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과 자활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34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거행

자총 양양군지회, 낙산사거리서 희생정신 기려



제34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지난달 28일 강현면 낙산사거리에서 열렸다.

한국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지회장장 정준화)가 주최한 이날 위령제에는 정준화 지회장과 김진하 군수, 최홍규 의장, 자총회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인 신분으로 자유수호를 위해 몸을 바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정준화 지회장은 봉행사에서 “조국의 평화와 안위를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싸우다 산화한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이 후대에 길이 이어지기를 염원한다”며 “매년 합동위령제를 통해 고인들의 넋을 기리며 조국의 튼튼한 안보확립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양송이밸리 숙박시설 확충

우리군, 방문객 증가 숲속의 집 8동 신축



우리군이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의 방문객 증가에 따라 내년 3월 15일까지 목재문화체험장 숲속의 집 8동을 새롭게 신축한다.

현재 숲속의 집은 휴양림 내 기존 숙박시설인 산림문화 휴양관 10동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짚-라인이 운영되고 목재문화체험장 설치에 따른 가족 단위 내방객들이 늘어나면서 이번에 7억4,600만원을 투입해 신축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군은 숲속의 집 신축 공사 기간 중에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휴양림 주변에는 동해바다와 남대천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구탄봉 전망대와 짜릿한 스릴을 경험할 수 있는 짚-라인, 남대천 소나무 숲길과 목재문화체험장,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송이관 등이 연계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戲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마-49) 짝자궁(作作弓)

짝자궁	짝자궁	양손바닥을 마주쳐 소리를 냅니다.
잘도 한다	우리 아가	다. 여기에는 이런 숨은 뜻 있겠습니다.
짝자궁	짝자궁	니다.
우리 아가	잘도 한다.	바로 天地造化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이의 반복연습으로 五臟

六腑의 血을 자극시켜 정상적 발육을 돕는다는 아주 평범한 우리 선조님의 육아 지혜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檀君聖祖께서 開國한 그때로부터 면면히 이어온 육아법이 있겠습니다. 이름하여 '檀童 +訓' 그것입니다. 학문적 이론의 체계는 혹 빈약하다할지는 몰라도 반복연습과정을 통하여 실천적 생활철학에서 저마다 자긍심을 의연중에 길러왔기에 수많은 역경에서도 참고 견디고 헤쳐 일어서게 되어 오늘의 「大韓民國」표상을 감히 자부해 봄직합니다. 지금 지구촌 이웃들이 자랑스러운 우리 성장 모형을 도입 적용하려는 그 움직임에 감사와 긍지 그리고 보다 굳건히 해야겠다는 새 다짐에 또 하나의 무게를 두게 하겠습니다. 그 장면 몇몇 골라 내놓아보겠습니다.

돼 가족단위 체험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말 현재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방문객 수는 4,223명이며 숙박시설 가동률은 8월 기준 80%를 보이고 있다.

이밸리 자연휴양림을 최고의 산림문화 관광복합시설로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목표로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담당

문종태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송

670-2795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서면 갈천리...산불예방 활동 모범

서면 갈천리 치래마을(이장 김남웅)이 산림청의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돼 지난 달 31일 현판 제막식을 갖고 포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과 김남웅 이장

등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치래마을은 김남웅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 모두가 △자발적인 불법소각 근절 △자체 산불 대응훈련 개최 △등산객 대상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올 봄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모범을 보여 이번

에 동부지방산림청의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됐다.

계량기 동파방지 보온팩 무료 공급

우리군, 3개 면지역 1,800개 보급

우리군은 겨울철 상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 예방을 위해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사

업을 추진한다. 군은 2013년에 현남면과 강현면을 대상으로 2,900개를 이

미 보급한데 이어 올해는 손양면과 서면, 현북면을 대상으로 보온팩 1,800개를 추가로 무료 보급할 계획이다.

동파방지팩은 스티로폼 조각과 방습제를 비닐팩에 담아 밀

봉한 것으로 수도계량기 위에 덮은 채 보호통 뚜껑을 닫아주기만 하면 되고, 스티로폼 알갱이들이 공기 흐름을 차단해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아준다.

▶문의 상수도사업소 운영담당 670-2567

제7회 양양예총 종합예술제 18일 '팡파르'

12월2일까지 다채로운 행사...연극공연 · 청소년 가요댄스 추가

양양예술의 진가를 선보이는 제7회 양양예총(회장 김남극) 종합예술제가 오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이 올라 12월2일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선보인다.

제7회 양양미술협회 회원전이 18일 오후 6시부터 22일까지 오후 5시까지 문화복지회관 1층 전시실에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며 향토 미술의 진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청소년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작품을 전시하는 제7회 청소년백일장 우수작품 전시회가 18일 오후 6시30분부터 12월2일까지 2층 대공연장 앞에서 열려 지역 청소년들의 감성과 예술적 기질을 뽑내는 장을 마련한다.



양양의 전통을 잇고 있는 양양국악협회는 오는 20일 대공연장에서 제7회 국악협회 정기공연, '가락, 바다같이 춤추다'를 주제로 구성된 우리가락과 전통민요를 공연할 계획이다.

앞서 22일 오전 10시에는 문화복지회관 대공연장에서 제6회 양양

제7회 국악협회 정기공연, '가락, 바다같이 춤추다'를 주제로 구성된 우리가락과 전통민요를 공연할 계획이다.

앞서 22일 오전 10시에는 문화복지회관 대공연장에서 제6회 양양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개최돼 전통국악의 맥을 잇는 청소년들의 한 마당 향연이 멋들어지게 펼쳐진다.

이어 오는 23일 오후 3시에는 공연장에서 제22회 강원도 주부가요제가 흥겹게 열리고 25일에는 지역출신의 예술가들이 마련하는 제7회 지역출신 젊은 예술가 초청공연 무대가 흥을 돋운다.

특히 27일 오후 7시 대공연장에서는 양양극단 행복한시작주식회사의 '미시리' 연극공연이 재미를 선사하고 28일에는 제7회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가, 29일 오후 3시에는 도내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제1회 양양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가 예술적 감동을 전한다.

탁장사 축제 경쟁력 입증

도자기 빚기 · 패다리 놓기 등 테마체험 인기



2014탁장사 고을 전통문화축제가 지난달 25~26일 현북면 원일전리에서 열려 특별한 테마축제로 가을추억을 선사했다. 탁장사권역인 원일전리와 어성전1·2리, 법수치리 등 4개 마을이 참여한 이번 축제는 현북면 원일전리 마을잔디구장에서 목공예, 전통 도자기 물레, 짚공예 등 체험행사를 비롯해 양양패다리 놓기, 탁장사 마당놀이, 농악놀이, 탁장사 나물쌈밥, 토속음식 맛 체험, 농특산물 판매장과 토속음식점 운영 등 다양하게 진행돼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날 축제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물레를 돌려 도자기를 빚고 널뛰기와 패다리 놓기 등 흔히 볼 수 없는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돼 호평을 받았다. 우리군과 탁장사권역축제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축제는 조선시대에 지 금의 송천떡마을에 사는 탁구삼과 강릉의 권장사가 경북궁 중건을 위한 목재를 차지하기 위해 경계지점의 소나무를 두고 힘겨루기를 한데서 유래한 것을 특별한 마을테마 축제로 전승, 관광자원화를 목표로 열려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양양수채화동호회 두 번째 회원전 열려

12~14일 3일간...회원 10명 26점 전시



양양수채화동호회(회장 김두원)가 지난 12~14일 문화복지관 전시실에서 두 번째 회원전을 갖고 그동안 갖고 닦은 작품을 선보였다.

첫째 날인 지난 12일 최홍규 의장과 최선남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장 등관계자들이 참석해 전시회를 축하했다. 이번 회원전에는 김두원 회장을 비롯한 회원 10명이 지난 1년간 자연경관과 생활 속 소재를 캔버스에 담아낸 작품 26점을 전시해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김두원 회장은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군 새 슬로건 개발 용역보고회

‘의기양양’·‘오감양양’·‘웰컴양양’ 압축

우리군이 지역이미지와 특성을 살린 도시브랜드 개선사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통합브랜드 개발을 통해 지역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사용해온 슬로건인 ‘오래 오래 양양 (Ole Ole yangyang)’이 진부하고 지역이미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3차례 걸쳐 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용역보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5월 회

의에서 모아진 14개 슬로건 시안과 디자인에 대한 추가 의견과 점검 등이 진행됐다. 현재 슬로건은 ‘의기양양’, ‘오감

양양’, ‘웰컴양양’ 등으로 압축된 가운데 군은 연내 1~2회의 용역보고회를 추가로 열어 지역특성을 담은 독창적인 슬로건과 디자인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도시브랜드가 확정되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홍보물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도시브랜드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박상민 기획감사실장은 “주민들도 공감하고 대외적으로도 우리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추수 마친 농업인들 화합의 장으로

명랑운동회 · 유공자 표창 등 다채로운 자리 마련



추수를 마친 설악권 농업인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을 가졌다.

우리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정재환)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실내체육관에서 김진하 군수와 최홍규 의장, 농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우리지역 5개 농업인단체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는 자랑

스러운 농업인과 분야별 우수 농업인 등 31명에 대한 군수와 군의회 의장, 국회의원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가을걷이를 마친 농업인들을 위로하는 자리로 농업인단체별로 체육경기로 명랑운동회를 마련해 모처럼 실내에서 체육경기를 즐겼으며, 향토음식 및 양양8미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양양물 올해 매출 1억원 돌파 예상

꾸러미 상품판매 인기...택배비 지원요청 많아

우리군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가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망인 양양물이 올해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입점이 어려운 개별농가들의 꾸러미 상품 판매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오픈한 양양물(쇼핑몰)은 나물류, 전통떡, 건강식품 등 36개 업체가 입점돼 150여 가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양양물은 오픈 초기에는 1천여만을 판매하는데 그쳤으나, 5만원 이하의 택배비 지원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난해부터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은 명절이나 가을 수확철에 몰리던 주문이 연중 판매로 돌아서면서 매출액 증가에 따른 지역이미지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유통담당 670-2703

알림

하수오 씨앗 무료로 분양합니다

하수오 재배에 관심 있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씨앗은 선착순 분양, 가을에 전량수매

만물 약초상회(671-2452, 010-4484-4144)

사랑의 연탄나눔 겨울나기 도움

무산복지재단 2만9,400장 배달...정념스님 복지증진 헌신

대한불교조계종 무산복지재단(이사장 정념스님)이 지난 8일 양양지역 초중고생들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도왔다.

무산복지재단은 이날 이사장인 정념스님과 정석삼 도의원, 최홍규 양양군의회 의장, 김환기 부군수 등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및 초중고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 나눔 발대식을 갖고 온기를 전했다. 특히 이날 발대식에는 지역 초중고생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모은 저금통을 가져와 사랑의 연탄모금에 동참하고 연탄 배달에 구슬땀을 흘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봉사정신을 함양시키는 산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발대식 후 양양읍과 서면 장승리 61가구에 연탄 6,100장과 쌀 61포, 라면 61박스를 전달하는 등 오는 12월말까지 관내 어려운 이웃 294세대에 가구별 연탄 100장

씩 2만9,400장의 연탄과 쌀 294포, 라면 294박스(3천300만원 상당)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념스님은 "사랑의 연탄 한장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승화돼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포근하게 감싸는 온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무산복지재단은 이사장인 정념스님을 중심으로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복지관과 아동센터 등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삼계탕과 겨울철 연탄나눔 등 연중 찾아가는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양양전통시장 문화카페 개관

2층 상가에 쉼터로...25일까지 운영자 모집

우리군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고객편의 확충을 위해 상가 2층에 문화카페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지난 8일 양양시장 상가 2층에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카페 개관식을 갖고 쉼터로서 활용할 계획이다.

문화카페는 양양시장 상가 내 비어 있던 상가를 리모델링해 40평 규모로 조성했으며, 여성을 위한 수유실을 비롯해 안마기, 도서 등을 갖춰 전통시장 이용자들이 장보기 후 쉴 수 있는 '시장쉼터'로 이용될 전망이다.

군은 이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전통시장 문화카페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2시 응모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가진 후 오는



26일 공개 면접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양양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예 및 예술가로 작품활동과 교육, 문화카페 내 작품전시가 가능한 사람으로 1년 단위 계약이며 음료판매가 가능하고 연 2~4회 체험교실 운영을 지원한다. 운영자는 무상입점이며 공고기간 내 모집되지 않으면 관외 거주자들의 신청도 가능하다.

동철감 · 헛개나무 묘목 보급

농업기술센터, 8,300주 농가에 공급

우리군농업기술센터(소장 홍봉기)가 지역 적응성과 소득화 경쟁력이 높은 동철감과 헛개나무 묘목을 이달 중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마을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은 동철감 7,000주, 헛개나무 1,300주며 분양단가는 1주당 동철감 3,000원, 헛개나무 1,000원이다. 특히 동철감은 우리지역을 비롯해 동해안지역의 특산품으로 색도가 연한 황색을 띠며 적당한 과당과 찰진 촉감으로 꺾임 품종으로도 최고로 꼽힌다.

또 저장능력도 강해 양양의 대표적 농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미 상표등록돼 많은 농가에서 재배에 나서고 있다.

헛개나무는 건강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며 이번 분양물량은 모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육묘한 것이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특화사업담당 670-2369

발전소주변지역 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소장 이방훈)는 10월과 11월에 걸쳐 발전소주변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기자재 지원을 시행하였다.



양양양수발전소는 양양군과 인제군 지역의 열악한 교육 인프라를 개선해 지역인재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육기자재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각급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데스크톱 및 태블릿 컴퓨터, LED TV, 레이저프린터 등 3천여만원의 교육기자재를 지원했다.

국내 양수발전소 가운데 최대규모인 100만KW의 설비용량을 갖추고 있는 양양양수발전소는 지역의 우수 인재육성을 위해 문예한마당, 해외문화탐방 등 육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우수학생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전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잇따라 표창 수상...지역발전·이웃사랑 헌신

최종한 민족통일양양군협의회 부회장

양양 발전에 헌신해오고 있는 최종한 민족통일양양군협의회 부회장이 잇따라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에서 표창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최 부회장은 지난 9월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33주년 및 2014년 전국대회에서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달에도 민족통일협의회 강원도 대회 및 한민족 통일문화제에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양양군사회복지협의회 감사를 맡고 있는 그는 앞서 지난 9월 열린 제2회 사회복지대회에서도 도지사 표창을 받는 등 두 달간 3개의 표창을 수상했다.

시·서·화(詩·書·畫)에 다재다능한 최 부회장은 향토시인으로 활동하

며 열악한 지역 문화예술 부흥의 발판을 마련해 왔다.

지난 2006년부터 양양문화원 제1기 공채 사무국장을 맡아 양양의 전통 문화 발굴 및 전승에 앞장서며 실버연극단을 창단하는 등 양양문화원의 새로운 도약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양양속초산림조합 감사를 맡고 있는 그는 꾸준한 작품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성금 1억원을 모으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희망2015 나눔캠페인’

‘사랑의열매’를 가슴에 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양양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법정모금 및 배분전문기관으로서 지난해 양양군민께서 기부하신 110,633천원을 포함하여 총9,442,324천원 모금하였으며, 중앙희지원금을 포함, 총13,834,580천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양양지역의 독거노인, 가정위탁아동, 저소득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에 207,290천원을 군민여러분을 대신하여 소중하게 전달하였습니다.

- 양양군 모금 및 배분현황 -

구분	모금액	배분액	모금 대비 배분비율
2013년	110,633천원	207,290천원	187.4%

올해에도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한 『희망2015 나눔캠페인』을 전개하오니 우리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관 :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간 : 2014년 11월 20일 ~ 2015년 1월 31일
- 모금참여 방법
 -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내 방송사(KBS, MBC, G1강원민방), 양양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ARS 060-700-0577 (1통화당 2천원 적립)
 - 양양군 순회모금(일시 : 2014.12.19 10:00~14:00, 장소 : 양양재래시장입구)
 - 금융기관 사랑의계좌 (수수료면제)

- 농협 203-01-448497 · 국민은행 301-01-0614-463
- 신한 100-013-455552 · 우리은행 02-156845-01-101
- 우체국 200022-01-003311 · 예금주 : 강원도공동모금회

- 세제혜택 : 법정기부금단체로서 모금단체 중 가장 폭넓은 세제혜택 제공
 - 개인 : 소득금액 100% 한도내 세액공제, 법인 : 소득금액 50% 한도내 손금산입
- 문의 :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화 244-1661, 팩스 244-1688, http://gw.chest.or.kr



일자리 찾으시나요? 취업성공패키지



1. 우리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구직의욕 강화와 취업계획 수립,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적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일자리를 찾으시는 구직자 중 아래표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이하인 경우「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단위: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패키지 I형	27,108	46,157	59,711	73,265	86,819	100,372
패키지 II형	직장	45,180	76,928	99,518	122,108	144,698
	지역	54,216	92,313	119,421	146,529	173,637

- ♣ 방문신청: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엠클리닉빌딩 3층
- ♣ 참여자격:
 - I 유형(만18~64세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이하인자)
 - II 유형(청년층 만18~34세 이하, 중장년층 만35~64세 이하)
- ♣ 지원내용: 1단계(4회상담 10~20만원지급)→2단계(직업훈련수당 최대 284,000원)→3단계(집중취업지원)→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I 유형에 한함)
- ♣ 제출서류: 저소득층·중장년층(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청년층(신분증, 등본, 졸업증명서)

고용노동부 속초고용센터 033)630-1919

희망의 정치 원하세요? 후원하세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기부

- 후원회 후원금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모두 가능
-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제 가능

스마트청구서(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에서 기부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로 직접 이체

농협 301-0138-1136-21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기부시 초과액의 15%~25%를 세액공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의
문의전화 : 033-671-4477

개인회생·개인파산 재판부 신설 홍보자료

1. 개인회생·개인파산 재판부 신설 근거
2014. 5. 20.자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5호)』
2. 개인회생·개인파산 재판부 업무 개시 일자
2014. 11. 21.(금)
3.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
개정된 법률 제3조 제9항에 의하면, 개정된 법률 제579조 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인 경우, 그 개인채무자는 2014. 11. 21.부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을 춘천지방법원 뿐만 아니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음.(즉, 개인채무자는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중 개인채무자가 원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4. 개인회생·개인파산 재판부 사무실 예정 위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청사 2층(민원동)
5. 개인회생·개인파산 재판부 연락처
미확정 (현재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6. 개인회생·개인파산 재판부 신설 홍보 부서 및 업무담당자
가. 홍보 부서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무과 서무계
나. 홍보 업무담당자
(1) 서무계장 구병섭 (033-640-1051),
(2) 서무실무관 이병채 (033-640-1052)

법인 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1.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 '14년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합니다
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시기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시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
· 세 율 : 국세 세율의 10% 수준인 독립세율(「지방세법」제103조의20 참조)
· 신고·납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 도입
·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15년 1월부터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지방세법」제103조의29 참조)
기타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033)670-2274

강원도광역치매센터 전문가파트너 모집안내

- 소개
치매는 의학뿐만 아니라 간호, 복지, 영양, 행정, 법률, 환경, 정보통신, 경영 등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복합 질환입니다. 전문 파트너들이 기부해 주시는 소중한 재능이 바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광역치매센터에서는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 전문가 파트너 신청 절차
1. 기 간: 2014년 4월 ~ 12월
2. 신청대상: 의료, 간호, 사회복지,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 심리, 레크레이션, 인지활동가(음악, 신체, 원예, 미술, 웃음, 댄스), 전통음악, 희극 등 다양한 재주를 가진 전문가로 노인문제 및 치매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
3. 신청방법: 자신의 분야를 증빙할 이력 및 자격사본 이메일 접수
4. 문의: 강원도광역치매센터 지원연계팀 (☎, 257-9165, gangwon@nid.or.kr)
- 활동사항
상담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맞는 활동 협의 후 노인요양시설이나 유관기관에서 관련활동을 수행
- 특전사항
1. 치매관련 교육이수 후 전문가 파트너 등록
2. 강원도광역치매센터 전문파트너 위촉장 발급

3.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 및 인증서 발급
4. 기념품 및 홍보물품 제공, 우수 전문가 파트너 시상
5. 치매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 기회 제공

공익홍보 영상물 및 화재예방 문안 전광판 표출

- 가. 기 간 : 2014.11.11~2.28(4개월간)
나. 장 소
-속초시 : 청학사거리 및 황소동상 앞 전광판
-고성군 : 고성군청 앞 전광판
-양양군 : 양양군 강현면 쌍천교 대형전광판
-양양시장 번영회 : 양양군 양양읍 전통시장 아케이트 내 대형전광판
다. 홍보영상 : 불임 참조
라. 전광판 표출안

대형전광판	○ 동영상 상영(양양군청, 양양시장 번영회 협조)
문자전광판 (중택선택)	○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소방차 길터주기에 동참하세요 ○ 국민행복을 위한 동행 속초소방서가 함께합니다. ○ 비상구는 생명의 문, 비상구 폐쇄 금지

임신출산육아기 일하는 여성 지원제도 안내

-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 ◇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육아휴직등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2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대하여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휴가나 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 사업주가 임신·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15개월 이하 자녀 대상) 중인 계약직 및 파견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지원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540만원(첫 6개월 월 30만원, 이후 6개월 월 60만원)을 지급합니다.
※ '15년부터 첫 6개월 월 40만원, 이후 6개월 월 80만원으로 상향 예정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40만원(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속초고용센터 ☎ 033-630-1919

국가가 보증하고 강원도가 권장하는 주택연금 안내!

- 100세 시대, 자식에게 물려 줄 것은 집이 아니라 “어르신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 주택연금은 생활비가 부족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평생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 집값이 떨어져도 똑같은 연금을 받고, 오래 사셔서 집값보다 더 받으면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집값보다 덜 받으면 자녀상속해주는 국가보증제도
- 혜택 : 재산세등 세금감면과 면제, 평생 거주 평생 소유권 보장 사망후 배우자도 같은 금액의 연금 지급, 연금소득세 공제 기초연금 수급가능성 확대, 국가보증으로 절대 안전 등
- 신청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 ☎ 259 - 3615

